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46-47문) : 예수님의 승천과 임마누엘

최민호 목사 (피스메이커교회)

1. "하늘에 오르사"에서 <u>하늘은 복된 장소(location)의 개념</u> (⋯› 초자연적인 천상의 장소)
   ① 축복받은 자들의 장소로 영광된 공간으로,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하는 곳.
   ②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곳. (=실제적 장소의 천국 개념) ⋯› 삼층천(Third Heaven)
   ③ 셋째 하늘에 제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복된 천사와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장소
   (엡4:10)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He who descended is Himself also He who ascended far above all the heavens,
   so that He might fill all things. ↳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2. 그리스도께서는 <u>인성(人性, humanity)에 따라서 승천.</u>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적으로, 가시적(visible)으로 하늘에 오르심. 그의 신성(神性, Divinity)은 장소에 제한 받지 않고, 어디에나 계시다. ⇨무소부재(無所不在, omnipresent)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성)은 초자연적인 장소인 "하늘"에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오르신 "하늘"은 성육신 이전부터 계셨던 가장 높은 영광의 장소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능력으로 승천하셨다.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의 실재(reality)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부활 후, 40일 후에 승천하셨다.
   그리스도는 심판의 날(재림 second coming)까지 이 하늘에 거하신다.

3. 그리스도의 승천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다. God with Us) 신앙을 약화하지 않음.
   그리스도의 인성은 땅에 계시지 않으시나 그는 신성은 어느 곳에나 계심
   ⇒ 예수 그리스도는 두 본성 (신성, 인성)을 가지고 한 위격(person 제2위, 성자)을 이루심.
   그의 신성과 인성은 신비적으로 연합돼 있어 분리 불가. 고유한 속성은 그대로 보유 (서로 구별)

4.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u>(임마누엘) 약속</u>에 대한 어거스틴의 해석
   (어거스틴) 임마누엘에 대한 그리스도의 약속은 그의 위엄(majesty), 섭리(providence)와 말할 수 없는 은혜(unspeakable grace)를 따라서 성취된다. 다만 그의 인성에 따라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 것이다. 그는 부활 후 40일 동안 육체로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또한 그의 위엄에 따라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

5.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u>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u>
   ① 그의 영(Spirit)과 신격(Godhead)로 신자들과 함께 하심
   ② 우리의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임마누엘 되심
   ③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으로써.
   ④ 그리스도의 인성(Christ's human nature)과의 연합 –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결하시는 성령
   (성찬의 신비) 영적 임재에 대한 바른 이해
   - 성찬의 떡과 잔의 본질(substance)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천상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심.
     신자의 영혼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며, 그와 연합(union with Christ).
   - 수르숨 코르다 (sursum corda) ⇒ 마음을 높이 들어
   - 에피클레시스 (epiclesis) ⇒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기원

   (롬10:6-7)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⑤ <u>완성의 소망</u> 안에서(In the hope of consummation).